



표준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술표준원의 소명



제17대 기술표준원장
김혜원

21세기의 자유무역체제는 세계시장을 단일화하여 자본 또는 기술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각국의 기업들은 최적의 생산지와 시장을 찾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블록화현상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EU, NAFTA, ASEAN 등 지역연합체가 결성되어 지역내의 시장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연합 이외에도 쌍방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이익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세계 경제시장의 통합은 표준이 기준이 되며, 하나의 표준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Global Standard”가 세계를 지배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표준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시장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과의 표준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시장마저도 표준화에 앞선 선진국의 제품에 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계속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에 피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표준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국제환경속에서 기술표준원은 표준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역사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표준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준의 공급자, 수요자, 수혜자 등 모든 표준의 대상자들이 표준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 고도 기술과 정보화, 환경친화적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국내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에서 표준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산업화 초기에 생산의 극대화를 통한 국부의 축적에 중점을 두었던 표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대변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지식기반 경제도약의 디딤돌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반상을 가지는 것이 표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로, 표준의 내상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효과가 국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표준 자체가 국가의 모든 요소에서 경쟁 우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표준은 주로 광공업분야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표준에 국한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생활, 문화,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인문사회적 표준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삶의 질을 보다 중시하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표준의 목표는 소비자의 안전과 복지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안전, 보건, 환경 등의 표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문화, 레지분야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전략적 표준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계무역량 중 표준화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WTO체제에서 합법적인 장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국제표준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국제표준이 국가나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요소가 됨에 따라 자국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들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표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표준화를 부기로 삼고 있습니다. 즉,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시장의 지배적 표준으로 만들어 시장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IT분야의 표준경쟁은 전면적 승리가 아니면 전면적 패배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드시 기술적으로 우수한 쪽이 이기는 것은 아니므로 기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 초기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술표준원은 표준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하여 창조적 조직문화와 혁신적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의 정수로 탈바꿈하여 기술과 표준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생활환경개선의 틀을 제공하고, 밖으로는 국제표준화의 선봉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